

2011년 9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3,742조회)

오늘 아침  
今日の朝

똑같은 아침을 맞아본 일이 있는가.  
まったく同じ朝を迎えた日があるだろうか

똑같은 하늘, 똑같은 태양을 본 일이 있는가.  
まったく同じ空、まったく同じ太陽を見た日があるだろうか

어제의 하늘은, 어제의 태양은, 결코 오늘의 그것이  
昨日の空は、昨日の太陽は、決して今日のそれでは

아니다. 삶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를  
ない。人生は正反対になる2つの要素を

다 포함하고 있다. 삶은 낡았으면서  
すべて包含している。人生は古臭いが

동시에 새로운 것이다.  
同時に新しいのだ

- 타골, 라즈니쉬의《까비르 명상시》중에서 -  
- タゴール、ラジニーシの<カビール> -

\*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 過ぎたことは過ぎたのです

아픔도 슬픔도 지나갔으면 끝난 것입니다.  
痛みも悲しみも過ぎさたら終わったのです

삶은 늘 두 가지 요소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人生はいつも2つの要素が重なって現れます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불행과 행복...  
悲しみと喜び、絶望と希望、不幸と幸福...

오늘 아침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今日の朝どんな選択をするかによって

나의 삶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私の人生の方向も決定されます

모든 낡은 것들을 털어내고  
すべての古いことを払って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新しく始めてください!

낡다

1. [형용사]古い; 古びている; 古ぼけている。
2. [형용사]古い; 古臭い; 旧式だ; 時代おくれた。

겹-치다

1. [자동사·타동사]重なる; 重ねる; ちか合う。
2. [자동사·타동사]重ねる; 折り畳む; 折り重ねる。

20110914.txt

はらう [払う]

1. [5단 활용 타동사] 없애다. 제거하다. 털어내다.
2. [5단 활용 타동사] 몰려나게 하다. 몰아내다.

ラジニーシ

까비르 (KABIR

2011년 9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2,885조회)

에너지 공식  
エネルギーの公式

성공한 사람들이  
成功した人々が

사용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使用する公式はとても簡単だ

에너지를 쓸데없이 빼앗아 가는 일을 줄이고,  
エネルギーを無駄に奪っていくことを減らして

반대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反対にエネルギーを充電してくれることに集中して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自分が発揮できる力を育てるのだ

간단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이  
簡単だといえるが、実際にはその過程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言葉のように簡単なことではない

- 탈렌 마이데너의  
《꿈꾸는 스무 살을 위한 101가지 작은 습관》중에서 -  
-タレンミーダナーの  
<夢見る20歳のために101つの小さな習慣>より -

\* 정말, 쓸데없는 곳에  
\* 本当に、無駄なところに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時間と勢力を浪費することが数多です

남의 탓, 조건 탓, 상황 탓 할 필요 없습니다.  
他人のせい、条件のせい、状況のせいに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자기 몸의 근육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만들 수 없듯,  
自分の体の筋肉を他人が変わりにつくれないように

에너지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エネルギーも自ら作って、自ら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정작 집중이 필요한 정확한 곳에  
そして、本当に集中が必要な正確なところに

혼신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渾身でそそぎこ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쓸데없-이  
1. [부사] いたずらに; 無用に。  
빼-앗다  
1. [타동사] 奪う; ぶんどる; 乗とる。

2. [타동사] 横取りする; 乗っ取る。

허다 [許多]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許多; あまた; 幾多。

정; 작

1. [부사] 本當に; 實際に; いざ; まさに。

2. [부사] 本當; 本物。

흔; 신 [渾身]

1. [명사] 渾身; からだ全体; 全身; 満身。

애정을 꼭 쏟아 붓다. → 꼭2

愛情をたっぷりそそぎこむ。

탈렌 마이데너 Talane Miedaner

2011년 9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2,307조회)

딱 한 사람  
たったひとり

누구나 가끔은  
誰でもたまには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다.  
心がつらくさびしいときがある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날도 있다.  
誰かに慰労されたい日もある

그런 날, 수백 명의 이름이 등록된 휴대전화의  
そんな日、数百名の名前を登録された携帯電話の

전화번호를 뒤적이다가 적당한 이름을 발견하지 못해  
電話番号をいじくったが適当な名前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ず

황망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うろたえる経験を誰でも一回くらいはしたろう

마음을 풀어놓고 싶을 때 연락하고 만나줄  
心をほどいてほしいとき、連絡して会うことができる

사람 한 명 없다면, 아! 얼마나 뻗뻗하고  
ひと一人いなければ、どれだけ強く

회색 냄새나는 삶인가.  
灰色のにおいがする人生だろうか

- 이주형의《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중에서 -  
- イ・ジュヒョンの〈一生いく私の人を残して〉より -

\*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 いろんな人ではありません

오직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ただひとり、その人なら十分です

그의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고, 얼굴만 떠올려도  
その名前だけ聞いても力があふれ、顔だけうかんでも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唇に微笑が広がります。その一人を通じて

절대 믿음, 절대 사랑을 알게 되고  
絶対信頼、絶対会いをわかるようになって

견줄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比べ物にならない慰労を受けます

오늘따라 그 딱 한 사람이  
今日に限って、その一人が

몹시도 그립습니다.  
とても懐かしいです

쓸쓸-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うすら寒い; ひえびえする; 肌寒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うら寂しい; ものさびしい; わびしい。

뒤적-이다

1. [타동사] いじくる; かきまわす。

황망 [惶忙]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心が落ち付かないで忙しいこと。

뻣뻣-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こちこちだ; こわばっている; こわい; 硬直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こわい; 硬い。

회색 [灰色]

1. [명사] 灰色。
2. [명사] 灰のような薄ネズミ色。

번지다

1. [자동사] にじむ; 散る; 染みる。
2. [자동사] 広がる; 広まる。

견주다

1. [타동사] 比較する; 比べる; にらみ合わせる。
2. [타동사] 競う; 張り合う。

몹시

1. [부사] ひどく; 大変; 大層; 非常に; とても; 甚だ; いやに。

2011년 9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1,539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정수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チョ・ジョンジュ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사랑은 '한다' 이다  
愛は'する'のだ

사랑은 지금이다.  
愛はいまだ

사랑은 '하였다' 도 '하리라' 도 아니다.  
あいは'した'も'しよう'でもない

언제나 사랑은 '한다' 이다.  
いつも、愛は'する'のだ

- 고은의 <상화 시편> 중에서 -  
- コウンの<霜花詩編>より -

\* 사랑하는 사람과의  
\* 愛する人との

꿀맛 같은 어제가 과거형이 아니고  
蜜月は昨日や、過去形ではなく

내일의 설렘이나 미래형도 아닌듯 합니다.  
明日のときめきや、未来形でもないようです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현재형인가 봅니다. 27살  
愛は時間を超越した現在形であるようです。27歳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私の人生に初めて愛する人が現れました

하지만 그녀에겐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しかし彼女に愛するほかの人がいました

하지만 말입니다. 전 지금 정말 행복하고 그녀를  
しかし、私は今本当に幸せで彼女を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 이 좋은 걸  
愛します。皆さんも愛、このいいことを

지금 하고 계시겠지요?  
いましていますか?

시편 [詩篇]  
1. [명사] 詩編; 詩篇。